

- 1. 영생대도의 실천
- 2. 영생학의 보급
- 3. 영생문화의 창달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는 존재의식을 초초로 죽이고 잊이겨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기독교인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살아 영생’의 길을 안내하는 참 목자를 찾아라

예수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불란서로 망명해서 84살까지 살았다(성혈과 성배 참조, 자음과 모음 刊) 그가 로마병정 판텔라의 아들이라는 주장(숨겨진 성서 참조, 문학수첩 刊)이 세간에 지금은 많이 알려져 있다.

하지만 1980년 초에는 이러한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영국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책, <성혈과 성배>가 출판되었는데 영국의 기독교 신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왔다. 그러나 영국의 교회들은 <성혈과 성배>의 출판금지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소송에서 영국 법원은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다. 당시 법정에서 판결을 받던 빌 쿠퍼라는 영국인은 판결에 실망한 신부와 수녀들이 자신의 옷을 찢고 통곡하는 소동이 일어났다고 증언하였다.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당시 법원의 이 판결로 말미암아 영국 국민들도 상당히 충격을 받아 기독교에서 이슬람교로 많은 신자들이 개종을 하였고, 방황 끝에 무신론자가 된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앙인의 목적은 무엇인가?

신앙인들의 개종은 자유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이를 생각해 본다면 과연 어땠을까? 아마도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신앙의 길을 저버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구세주로 신앙을 한 사람들에게 그대는 무엇을 목적으로 신앙했는지 그 목적을 물으셨을 것이다.

성경을 믿는 신앙인의 목적은 무엇인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에덴동산을 다시 회복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성경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사정을 파악하여야 한다. 성경은 예수를 구세주라고 믿으라고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정을 기록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사



예수의 후손들이 프랑스에 많이 살고 있다고 <성혈과 성배>저자들은 주장한다

정은 죽는 세상을 없애고, 죽지 않는 영생의 세계를 이룩하는 데에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구세주를 이 땅에 내려 보내신다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진실이다.

하나님은 영생의 신이므로 자살은 죄다

그런데 예수의 모든 진실이 알려지자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선택하고,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성경의 진실을 몰랐다는 것이다. 가짜 구세주 예수조차도 마지막에는 성경의 진실을 말했다. “내 뒤에 이 세상 임금인 오신다(요한 14:30)”라고 이 세상 임금은 하나님이고 구세주이므로 자신은 구세주가 아니라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진짜 구세주를 찾아서 그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는 것이 진정으로 신앙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사명임을 알아야 한다.

더 나아가 신앙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맘대로 할 권한이 없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마음먹은 순간부터 그 목숨은 하나님의 것이다. 죽는 것도 내 맘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왜? 그 생

명이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신앙의 길로 접어드는 순간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에 입해야 그때부터 신앙의 첫발을 내딛는 것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누가 20:38). 그렇다면 하나님은 죽은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런데 죽어서 천당 간다니 이견 벌써 앞뒤가 안 맞는 것이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하고 상관이 없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천당과 지옥에 가겠는가. 죽으면 무조건 지옥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보고 알아야 한다. 그들은 죽으면 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멸하시 그 모든 기억을 멸절 하였음이라(이사야 26:14).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신앙은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신앙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영생의 신이므로 죽는 것도 내 맘대로 할 수가 없다. 죽어서는 아무것도

없다. 신앙을 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명심하고 움직인다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생기는 것이다. 이것만 알면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알게 되는 것이다.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기 때문에 진실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마태 7:21). 하나님의 뜻은 죽지 않는 영생을 이룩하는 것이다.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아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그 안에 영생이 있음이라(요한 5:39). 이렇게 성경은 써여 있는데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영생이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죽어서 천당 간다는 허무맹랑한 말을 하겠는가.

영생의 길로 안내하는 참 목자를 찾아라

하나님의 신은 영생의 신임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라. 그러면 절대로 속는 일은 없다. 그래서 신앙을 하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영생의 길로 안내할 참 목자를 찾는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참 목자를 찾지 못하면 자신은 영생의 길이 아닌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죽음을 당연시 하는 모든 종교인들은 신앙생활을 헛되이 하고 있다는 것이 된다. 그래서 참 목자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참 목자를 찾는 다음에는 그가 이끄는 대로 가지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 참 목자는 하나님이고 구세주다. 죽어서 천당 간다고 하는 자는 절대로 참 목자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박영진 기자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66)

“지옥도 1차지옥이 있고 2차지옥이 있다”

지옥도 1차지옥이 있고 2차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1차지옥은 땅속에 들어가는 것이요, 2차지옥은 바로 무론 대소하고 죽은 사람들의 영과 살아있는 사람들이 백보좌 심판자 앞에서 심판을 받아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지옥이 바로 천당이라고 그랬죠?

천국이라고 하는 곳은 빛의 세계인 고로 그 세계는 태양도 없고, 별도 없

고, 달도 없는 것입니다. 태양빛 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는 고로 태양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지옥이 바로 천국인데, 천국이 이루어지면 온 세계 마귀가 죄인들 속에 들어가 죄인들은 영원무궁토록 펄펄 뛰면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지만, 그때가 되면 살려줄 수가 없고 그 죄를 탐감해 줄 길도 없는 것입니다.*

본부제단 전 지역 및 구역 8월 활동 평가

6지역, 지역 구역 개인 1등 모두 휩쓸어



9. 8. 본부제단은 전체 구역장 회의 를 열고 본부제단 8월 활동 성과와 임상자를 발표하였다. 8월 일등은 윤금옥 승사와 석선자 권사의 활약에 힘입어 6지역이 지역, 구역, 개인을 통틀어 전체 1등을 차지하였고, 2등은 지역의 5지역, 3등은 4지역으로 매겨졌다.

윤봉수 회장은 격려사에서 “윤금옥 승사와 석선자 권사 두 분이 8월에 제단과 하나님의 사업에 가장 열심히 동참한 결과이며, 이러한 상들이 모여서 나중에 구세주로부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큰 상을 받게 될 것 이므로 입상하지 못한 분들도 9 월에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성적

석선자 6지역 지회장이 상을 받고 있다 을 내기 바란다”고 격려의 말씀을 해주었다.

- 지역 1등: 6지역(지역장 김주호, 지회장 석선자)
- 지역 2등: 5지역(지역장 박철수, 지회장 신순이)
- 지역 3등: 4지역(지역장 윤봉수, 지회장 이영애)
- 구역 1등: 윤금옥 58구역장
- 구역 2등: 신순이 45구역장
- 구역 3등: 안경미 11구역장
- 개인 1등: 윤금옥 승사
- 개인 2등: 석선자 권사
- 개인 3등: 김인숙 집사*

새식구 환영 100일 잔치 및 성도증 수여식



2015년 9월 4일 홍경일님의 새식구 환영회 100일 잔치 및 성도증 수여식이 있었다. 홍경일님은 1966년 생으로 올해 나이 50세이며, 서울 탑골공원에서 2015년 5월 23일 토요일 특별전도팀에 의해 전도되어 특별전도팀장인 김종만 팀장을 중심으로 각별히 정성을 들인 끝에 9월 2일자로 100일을 달성하였다. 윤봉수 회장은 환영사에서 “이 길은

젊은 세대가 결실되기가 무척 어려운데 독신에 50세의 나이면 한 참 일할 나이므로 앞으로 제단 일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을 기대한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 길을 가자.”고 당부하였다.

홍경일님은 “모두가 한 마음으로 똘똘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 빨리 세상에서 하던 습성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

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각오로 새식구 환영회 100일 잔치의 소감을 이야기 하였다.

홍경일님의 100일 달성을 축하드리며 끝까지 이 길을 우리와 함께 영생의 길을 가는 승리제단 성도가 되어 주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승리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 - 02 - 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

승리제단에서는 諸宗教의 경전에 예언되어 있는

제종교

三神一體 一人出 된 眞人の 증표인 甘露가 항상 내립니다

삼신일체 일인출

진인

감로



8.12. 성탄절 행사 시 내린 이슬성신 / 서재봉 승사 촬영



8.12. 성탄절 행사 시 내린 이슬성신 / 서재봉 승사 촬영



8.12. 성탄절 행사 시 내린 이슬성신 / 서재봉 승사 촬영

이슬성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호세아 14:5)이라 빛의 형상(요한 1장)으로 나타난다.

구세주를 진심으로 따르는 승리제단 신도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구세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슬성신이 카메라에 잡힌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이슬성신을 볼 수 있지만 죄인의 눈에는 안 보인다. 대신 죄가 없는 카메라 렌즈에는 찍히는 것이다.

본지 지남호는 승리제단 홈페이지 <http://www.victor.or.kr> 에서 볼 수 있습니다.